

# 일본의 양계소식

##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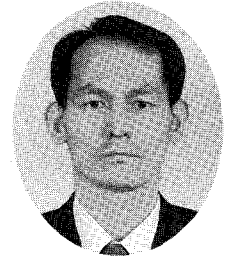
### □ 계란판매 캠페인 실시

중부상품판매소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중부상품판매협회와 제휴하여 계란판매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계란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헌과 2005년에 개최되는 아이지(愛知)박람회「사랑·지구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기간 중 모든 위탁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성화 접수 모으기」를 실시하여 상위 3사에게 기념품과 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이 상금은 수상한 위탁회원의 후의에 따라 복지단체 등에 보내지고 중부상품판매소에서 상금과 상당금액을 아이지(愛知)박람회 입장권 등으로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계란시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계란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강연회를 나고야(名古屋), 도오쿄(東京), 오오사카(大阪)의 3개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민 병 선  
(농학박사)

### □ 소비감소상태에서 계란생산량은 사상최고

일본양계협회는 7월 30일에 개최한 계란수급안정·소비촉진대책위원회에서 금년의 계란생산량은 사상 최고로 예상되는 한편, 소비감소 등으로 이 상태를 방치하면 최악의 계란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예상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도태실시, 사육수수 10% 감축, 입추자제 등을 생산자에게 호소하였다. 더욱이 소비확대를 위하여 전국신문에 광고를 하기로 결정하여 계란자주기금사업부회원을 포함한 생산자에게 전년도와 같은 사업 부담금 협력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7월 30일 회의 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 입추수가 10.6% 증가하여 금년 성계숫자는 고수준에 도달하여 농협이 예상한 상반기 계란생산량이 129만5천톤(전년대비 0.3% 증가), 하반기 130만5천톤(0.8% 증가) 전후로 예상되어 연간 260만톤을 초과하는 사상 최고의 생산량이 예상되지만 「농립수산성의 계란생산량 통계는 너무 적다」 등의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금년 1~6월의 병아리 입추(전년대비 1.5% 증가) 동향을 보면 내년에는 금년을 더욱 상회하는 생산량이 예상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소비에 대해서는 가계소비 1인당 소비량은 1~5월까지 전년대비 2% 감소하였고 업소용 계란도 불황의 여파로 판매가 어렵고, 가공용 수요도 움직임이 없다, 특히 금년에는 난백의 과잉이나 대량사용자의 값싼 동결란 주문이 감소한 결과 예년처럼 기대되는 여름철소비도 크게 기대할 수 없어 가공용 수급조절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보고되었다.

위원회에서 보는 현재상황은 『소비감소상태에서 사상최고의 계란생산량』으로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이 상태로는 앞으로의 계란가격 폭락이 염려되기 때문에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년 1~7월의 평균계란(M기준) 가격 150엔(1,500원/10개)이고 사료가격의 인상(4엔/Kg)과 계란생산비의 10엔(100원/Kg) 상승으로 생산자의 경영비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일치된 인식이다. 비용은 전년과 같이 각지방양계협회를 통하여 1억엔(10억 원)을 목표로 농가, 관련단체, 기업에 협력을 요청하여 모으기로 결정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80	192	176	162	156	91	900t



## 특 기

### □ 네덜란드와 중국의 닭고기 수입금지 해제

농림수산성은 8월 12일부터 네덜란드의 가금육 등의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형질아형H7)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금년 3월 3일부터 네덜란드산 가금육류의 수입을 일시 금지시켰었으나, 최근에 네덜란드 가축위생국으로부터 자국내에서 90일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었고, 발생지역의 청정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청정성을 확인하여 수입금지를 해제하였다. 또한 중국산 닭고기도 8월 19일부터 수입 일시금지조치를 해제하였으며, 8월 17일 이후 도계된 닭고기 수입은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가금육류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조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동물검역소의 검사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형질아형 H5N1)가 분리되어,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금년 5월 12일부터 중국산가금육류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 고구마 토종닭(薩摩雞) 상표등록

가고시마현(鹿兒島縣)에서 작출한 토종닭은 생산자나 소비자 등 많은 사람으로부터 명칭을 공모하여 「고구마 토종닭」으로 정해졌다. 생산진흥과 브랜드확립을 목적으로 고구마를 이미지화시킨 마크를 붙인 상표등록을 2000년부터 시도하여, 금년 5월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이 토종닭을 작출한 배경에는 당시부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어 가운데, 그 중에서도 브로일러와는 다른 토종닭이라는 특색있는 닭고기 생산이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마 토종닭」은 일본의 천연기념물인 고구마(薩摩)닭의 수탉과 미국에서 작출된 난육겸용종인 로드아일랜드 암탉을 기초계(雞)로 1990년부터 증체성, 산란성, 외관을 중심으로 육종·선발을 반복하여 2000년에 완성하였다. 「고구마 토종닭」의 특징으로는 깃털이 아름다운 다갈색으로 토종닭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육색은 적색의 피가 있고 근섬유가 가늘어 고기결이 가늘기 때문에 부드러운 반면, 장기사육으로 고기의 씹히는 맛이 좋아 육질이 우수하다. 혈통면에서는 특정 JAS 규격의 재래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구마닭과 로드아일랜드드레드의 교잡으로 이루어진 100% 토종닭이다.

현재 「고구마 토종닭」은 가고시마의 7개 단체와 3개의 진흥회회원으로 구성된 「고구마 토종닭 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12만수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축산정보 국내편」에서 발췌).

### □ 일본과 태국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닭고기관세의 예외적용 요청

(사)일본식조협회는 9월 4일 일본과 태국간 교섭 중인 FTA에서 태국측이 요망하는 닭고기 관세철폐를 예외로 유지하도록 농림수산성에 요청하였다.

일본식조협회는 연간 52만톤의 수입닭고기 중, 태국산이 35%(수입액의 35%)로 1위이며, 만약 관세가 폐기되면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로 가격파괴가 심화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닭고기산업이 괴멸되는 것은 물론, 생산규모의 확대와 닭고기 처리비용의 절감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가운데 계분 처리문제 등의 규모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가세하여 비용삭감에도 한계가 있어 닭고기 관세철폐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요청한 것이다(계명신문 발췌).